



2018년 학자금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쟁취!

총단결! 총력투쟁! **투쟁속보**
9대 요구 쟁취! '18투쟁 승리!

제 2 호

2018년 5월 17일(목)

발행: KT노동조합

조합원을 기만하는 경영진은 각성하라!

중앙본부 및 전국 지방본부별 철야농성 및 출근선전전 전개

조합간부
선도투쟁
'18투쟁승리



2018년 단체교섭 투쟁의 깃발이 힘차게 올랐다. 노동조합은 14일(월) 개최한 산하조직대표자회의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18 단체교섭을 투쟁으로 돌파하기 위해 조합간부 선도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 투쟁지침에 따라 첫날인 15일(화) 중앙상집 및 지방 상집간부 전원이 거점건물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튿날 16일(수) 아침에 중앙본부는 광화문 사옥에서, 각 지방본부는 거점건물, 지부는 해당지부 앞에서 투쟁속보를 나눠주며 전국적으로 출근선전전을 전개했다.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조합간부 철야농성과 출근선전전 등 조합간부 선도투쟁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재협상! 실질임금 쟁취! 더 이상은 못 참겠다! 9대 요구안 쟁취하자!

2018년 단체교섭은 4월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서 본교섭 세 차례와 임금 및 제도개선 실무교섭을 모두 아홉 차례 개최했다. (※현재 노사 쟁점사항 아래표 참고) 그러나, 교섭회의에서 사측의 불성실 교섭태도로 인해 단체교섭은 완전히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사측은 노측의 요구 안에 대해 “재원이 없다. 특히 올해가 더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전혀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섭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다.

김해관 위원장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와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은 5대 핵심공약을 조기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단체교섭의 과정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함께하겠다. 또한 모든 투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하고 약속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조합간부 선도투쟁만으로 멈추지 않고 결사투쟁으로 폭발할 것이다. 사측이 정말로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조합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합 간부의 강고한 선도투쟁으로 2018년 투쟁은 기필코 승리한다!

[단체교섭 요구안 쟁점사항]

| 9대 요구안 | 노측 요구 | 사측 입장 |
|-------------------|---|---|
| 임금인상 | 임금 4.7% 인상(고과인상 별도) | 0.5% 정액인상 |
| 임금피크제재협상 | 감액률 : 58세→5%, 59세→10% | 현 수준유지 |
| 복지기금 출연 | 1,000억원 | 376억원 |
| 대학학자금지급 | 3자녀16학기 75%지원 | 현 대부제도 유지 |
| 카페테리아복지도입 | 세대별 맞춤 복지정책 완성 | 노사공동 연구 |
| 의료비 지원확대 | MRI, CT, 초음파 : 비급여 100%지원 | 수용 |
| 장기성과급제도신설 | 매년 전년도 영업이익 10% 주식배분 | 일시금 100만원 지급 |
| C/Sales/A직 일반직 전환 | 일반직 전환 및 보수체계 개선 | A직 입사자의 G직전환 긍정검토 |
| 인사보수 제도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과 차등폭 축소, 승진적체 해소 ○ U고과 개선 ○ 페이밴드 상한조정(상한자 실질임금 인상) ○ 직권면직제도 및 대기발령제도 폐지 ○ 무급휴직제도 도입(배우자 해외파견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적체 해소 긍정검토 ○ 임금삭감 없도록 개선 수용 ○ 수용 불가 ○ 폐지 수용 ○ 경쟁사 직원을 제외한 배우자 해외파견 시 수용 |